

“현명한 家庭管理로 가정생활質 높여야..”

관리능력 향상위한 再教育은 꼭 필요

『人間の 기본욕구가 가장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곳이 바로 家庭이지요. 가정생활은 인간의 생산활동의 기초단위이며 가정에서 행해지는 것이 衣·食·住·保育·家族關係 등으로 이러한 것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합리적인 가정생활을 운영하는 길잡이를 하는 것이 바로 家庭管理입니다.』

韓國家庭管理學會 韓相淳 회장(전국대 가정대 가정관리학과 교수)은 가정관리는 바람직한 가정생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人的·物的 자원을 투입하여 계획하고 통제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조직적 작용을 통해 가족원간의 조화와 안정을 이루면서 시대변천에 따른 가정생활의 質을 높여나가는 것이 가정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밝힌다.

韓회장은 비교적 자원이 적고 욕망이 단순했던 과거에는 가정관리도 단순했으나 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변화함에 따라 가정관리도 더욱 세분화되고 심화되어가고 있는데 이는 현대사회가 산업화·도시화함에 따라 가족구성원들이 많은 자원사용 가능성과 무한한 욕망에 직면하게 되고 또한 선택의 개인적·사회적영향력까지도 고려하게 되어 가정관리에 대한 개념이 광의의 가정경영으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현명한 가정관리를 하려면 급변하는 환경을 이해하고 가정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줄 아는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가정관리의 주제인 주부의 가정관리 능력의 우열이 가족의 목표달성과 만족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건전한 가정과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가정관리자인 주부가 건전한 가치의식과 합리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관리를 대행해야



韓相淳 회장

합니다.』 韓회장은 가정에서의 주부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보다 유능한 가정관리자가 되기 위한 훈련 및 노력이 필요한데 우수한 관리능력은 전통의 답습이나 습관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관리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韓회장은 주부들의 가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교육을 적극 권장하면서 주부들의 재교육의 일환으로 우선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TV와 라디오 등 매스컴을 통한 교육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 중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는 라디오를 적극 활용하여 상품의 선택요령에서 부터 가사작업의 능률적인 처리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어머니교실」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교육하는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한다

韓회장은 몇년전 우리나라 주부들의 가정관리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高學力의 주부일수록 가정관리능력이 높았으며 특히 관리능력이 있어서 統制능력이 가장

높은 반면 計劃능력은 최하위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사회변천에 따른 주부들의 再教育은 소홀히 넘길수만은없는 문제라고 힘주어말한다.

따라서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우선 한가지 일을 완결한 후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음 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계몽·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인다.

『가정관리학은 가정현상의 내용에 따라 연구대상이 구분되는데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연구는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인간 및 가족을 둘러싼 인접환경에 작용되는 자연과학적 대상에 관한 연구는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韓회장은 사회의 변천에 따라 가정현상도 변화하므로 人間生態學的 측면에서의 연구와도 연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가 시급하므로 이 분야 연구에 있어서는 앞서 있지만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미국이나 구라파쪽보다는 우리와 문화적 배경이 비슷한 일본이나 대만등 동양권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만의 독특한 가정관리 체계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韓회장은 앞으로 가정관리학분야에서 연구해야 할 과제는 상당히 많은데 특히 평균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는 老人문제를 비롯, 가족구성원간의 원만한 관계유지에 관한 문제, 주부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남에 따른 가사노동관리에대한 연구,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야기되는 과소비문제,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합리적인 가정경제를 영위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들이라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급변하는 사회변천에 따라 어떻게 적응해 나가면서 바람직한 가정관리를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에 앞서 주부 자신의 합리적·과학적 생활태도의 가치관 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韓회장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학력이 점차 高學力化하고 여러가지 지식 습득의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주부들의 가정관

리능력도 향상돼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까지 가정관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관리능력 향상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극적인 태도란 가정관리의 능력배양이 가정교육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합리적인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습관에 따라 생활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

韓회장은 이러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학회가 앞장서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분야 연구를 활성화시켜 질 높은 연구결과를 각 가정에 보급함으로써 가정생활의 질적향상을 꾀함과 동시에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작정이라고 말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정관리학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 하기 시작한 것은 학회가 설립되면서 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러나 대학에 가정관리학과가 전공과목으로 독립되고 이를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가정관리학의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질 높은 연구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韓회장은 학회가 77년도 7월에 「가정관리학 분야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하여 가정생활의 질적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래 각종 연구발표회 개최, 학회지 간행, 가정생활에 관한 법규·생산품의 기준심의 및 연구,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 목적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해 오면서 生活의 과학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회업무를 전담할 사무요원은 물론 독자적인 사무실도 마련하지 못할 실정이므로 학회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안정이 급선무라고 밝힌다.

『원만한 가족관계는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는 전제조건이지요. 가족구성원간의 화복과 안정이 바로 원만한 가족관계의 지름길입니다』 韓회장은 가정생활의 조화가 바로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서 가정관리의 주체인 주부들이 보다 더 능동적으로 가정관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權光仁 記〉